

2010년 이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유형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경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Type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rompe L'œil Expressed in Modern Fashion Since 2010

Kyung-Hee Kim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6. 4. 11 접수; 2016. 5. 27 수정; 2016. 5. 3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fashion culture through the expansion of creative fields in the fashion design area and also the combination of fashion and art techniques, by classifying the cases of Trompe L'œil expressed in modern fashion, and also analyzing its aesthetic characteristics. Conducting the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the analysis of design cases, it targeted the women's wear collections of Paris, Milan, London, and New York, limiting its range from S/S 2010 to F/W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the types of Trompe L'œil expressed in modern fashion were shown as realistic expression of clothing, movement of daily objects, double images, and application of human body.

Seco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rompe L'œil based on its expression types were deconstruction, avant-garde, and amusements. The deconstruction was expressed in the expression type of Trompe L'œil such as freedom of materials using digital printing technique, change in the position of clothes, and movement of daily items using collage technique by collecting objets like daily items or waste. The avant-garde was expressed by switching/overlapping in and out of clothes, intentionally exposing some body parts like breast or torso, displacing body parts, and moving daily items. The amusements was shown by realistically expressing accessories or details of clothes using digital printing technique, or moving daily items such as book and fork.

Key Words: Trompe L'œil(트롱프뢰유), Aesthetic Characteristics(미적특성), Deconstruction(해체성), Avant-Garde(전위성), Amusements(유희성)

I. 서 론

예술은 한 시대의 내용과 형식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그 시대가 이상으로 지향하는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Kim
Tel. +82-2-920-7665, Fax. +82-2-926-7862
E-mail : kim1023@sungshin.ac.kr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미적가치, 도덕관, 이념, 사상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표현양식을 통하여 구현한다(신주영, 2008). 특히 조형예술의 한 장르인 패션은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영역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다. 패션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 중에서도 예술양식은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에 독창적인 영감을 제공해주고 있다(신혜정, 2010). 또한 Hamilton(1987)은 복식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 문화의 한 단면을 표출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는 2000년 이후 고도화된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인 인간소외와 자아정체성의 상실을 해소하고자 대중문화 뿐 만 아니라 디자인 산업에서도 오락, 재미, 즐거움의 테마가 강력한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새로운 대중예술의 경향으로 등장한 트릭아트(trick art)는 미술 양식의 표현기법 중 하나인 트롱프뢰유(trompe l'œil)을 기반으로 하여 극명한 묘사와 특수 도료를 통해 2차원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사람에게 착시를 일으키는 체험형 회화로 디자이너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예술분야로 각광받고 있다(유인화, 2011). 이러한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는 미술 양식의 표현 기법 중 하나인 트롱프뢰유는 미술의 전개과정 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도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보다 새로운 창조성과 유희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패션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트롱프뢰유를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방성련, 2007),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권연옥, 2009)에서는 현대 패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초현실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으로 트롱프뢰유를 소개하고 있다. 레이어링에 의한 Trompe l'œil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신혜정, 2010)에서는 트롱프뢰유 표현 기법 중 하나인 레이어링 착시 기법을 반영한 여성복 브랜드 런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작품제작

을 하였다.

트롱프뢰유 패션디자인의 형태 생성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이신영, 2013)에서는 패션디자인의 트롱프뢰유 표현기법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형태 생성에 필요한 구성 요소 및 결합 조건을 살펴보고 형태 생성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트롱프뢰유 패션 디자인의 조형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예술 작품에 나타난 트롱프뢰유 표현기법에 따라 현대 패션디자인을 분류, 분석한 연구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Trompe-l'œil에 관한 연구(손영미, 조영아,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Trompe-l'œil 표현에 관한 연구(김선영, 2010),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페이크 디자인 연구(박은경, 2010)이 있다. 조진숙(2004)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 표현 기법을 두벌 착용효과, 디테일 효과, 액세서리 효과, 인체노출효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초현실주의 예술가의 작품, 초현실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에서 트롱프뢰유를 표현기법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거나 2010년 이후 선행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단편적인 트롱프뢰유의 기법과 외적인 표현 유형 대하여 분석한 연구 사례들은 많았지만 이러한 트롱프뢰유의 표현유형에서 표출되는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롱프뢰유 표현이 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트롱프뢰유의 미적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2010년도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표현유형 사례를 분류하고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 고찰하여 패션디자인분야에서 창작영역의 확대와 패션과 미술기법의 접목을 통한 창조적인 패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 표현유형의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서적, 트롱프뢰유와 현대 패션에 관하여 선행 연구된 관련 학위 논문들, 학회지,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고 디자인 사례 분석을 위하여 트

롱프뢰유 표현기법이 접목된 현대 패션의 사진자료들을 <http://www.style.com>, <http://www.samsungdesign.net>, <http://www.firstviewkorea.com>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10년 S/S부터 2015년 F/W까지로 한정하고 지역적 범위는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컬렉션의 여성복 컬렉션을 대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트롱프뢰유의 개념과 전개

트롱프뢰유(Trompe l'œil)는 ‘속이다’라는 의미의 *troper*와 ‘눈’이라는 의미의 ‘œil’이 합쳐진 프랑스어로 실물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림을 의미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에 표현된 대상물들을 또한 트롱프뢰유는 환영과 같은 착각이나 착시의 눈속임 기법을 지칭한다(삼화출판사, 1985; 이경은, 1995). 또한 트롱프뢰유는 넓은 의미로 착각기법 또는 착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이경은, 1995), 착각은 모든 감각에서 인정되는 반면, 시각에서의 착각만을 특히 주목하여 이를 착시(illusion)라고 따로 부른다(조진숙, 2004). 따라서 착시는 크기나 형태, 길이나 거리, 색채나 움직임 등과 같은 하나나 둘 이상의 시각적 자극 속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지각을 의미하며 현실에 있는 것이 왜곡되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유한태, 1987).

따라서 트롱프뢰유는 그림에 표현된 대상물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묘사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착각하게 하여 경험적 방법에 의한 착시 효과를 얻어내는 눈속임 기법이다(이경은, 1995). 이러한 트롱프뢰유의 표현 기법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의외성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시지각의 경험과 달리 재미와 신비로운 시각 경험을 제공한다(송영경, 2008).

이러한 기법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시도되었으며 실존하는 작품들 중 미술사에 널리 알려진 최초의 트롱프뢰유의 예는 1504년 바르바리(Jacopo de Barbari, 1450~1515)의 <자고새가 있는 정

물>(그림 1)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석공의 화살에 목을 꿰인 자고새가 갑옷의 장갑과 벽에 걸려 있는 모습으로 벽면처럼 보이는 저 평면은 목판이다(그림 1). <비평에서 도망가기>(그림 2)는 액자 속의 사람이 실제 세계로 튀어나오는 장면을 연출한 작품으로 액자를 이용한 눈속임을 통하여 트롱프뢰유의 전형적인 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트롱프뢰유의 사실주의적 기법은 주로 공간감을 어지럽히는 환상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었고 근세 네덜란드에서 세속적인 물체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이 뒷받침된 정물화의 변종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였다(월간미술, 2002).

트롱프뢰유는 전성기가 지난 18~19세기에도 여전히 그려졌을 뿐 아니라 이후 트롱프뢰유는 팝아트(Pop Art)에 그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 트롱프뢰유 기법을 응용한 회화, 건축, 패션 등 다양한 조형예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안성준, 정재윤, 2011).

2. 회화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특성

트롱프뢰유는 실물과 같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하여 외부세계, 내부세계, 환상과 현실을 이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초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한다(신혜정, 2010). <회화와 커튼이 있는 트롱프뢰유>(그림 3)은 정밀한 꽃의 묘사 위에 사실적으로 묘사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작품으로 관객으로 하여금 이 작품을 보기 위해 나머지 커튼을 걷고 싶은 충동을 들게 한다. 이 작품에서 커튼은 실제 그림 위에 드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영에 불과하며 제우스스와 파라시오스의 일화를 원용해 그린 작품이다(이주현, 2011). <Self Portrait with Model>(그림 4)에서는 실제 사람의 형상을 한 모형(figure)을 이용하여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모델의 의상, 액세서리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그들의 사고를 실재와 허구세계를 교란시켜 초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트롱프뢰유의 표현 특성 중 하나인 그림 속의 그림은 작품 안에서 두 개의 상태 또는 공간이 하나의 관점에서 관찰되어 시공간적 경험을 변경시켜 놓는 방법이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마그리트(René François Ghislain



〈그림 1〉 야코포 데 바르바리(1504).
자고새가 있는 정물,
(출처: 진중권(2011). 서양미술사)



〈그림 2〉 델카소(1874). 비평에서
도망가기,
(출처: http://www.sciencetimes.co.kr/?p=109255&post_type=news&news-tag=-)



〈그림 3〉 판 데어 스펠트와 판 미리스
(1656), 화환과 커튼이 있는
트롱프뢰유,
(출처: 이주현(2009). 지식의 미술관)



〈그림 4〉 Duane Hanson(1979).
'Self-Portrait with Model.'
(출처: <https://artblart.com/tag/duane-hanson-self-portrait-with-model/>)



〈그림 5〉 Rene Magritte(1935). 인간의
조건 1,
(출처: 개블릭(2000). Rene Magritte)



〈그림 6〉 Rene Magritte(1937),
막 세네트 예찬,
(출처: 개블릭(2000). Rene Magritte)



〈그림 7〉 Rene Magritte(1935).
The Red Model,
(출처: 개블릭(2000). Rene Magritte)



〈그림 8〉 Rene Magritte(1934). 능욕.
(출처: 개블릭(2000). Rene Magritte)

Magritte, 1898~1967)는 일상의 물체들을 화면 속에 병치시키거나 결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초현실적 경험을 제공하였다(신혜정, 2010). 〈그림 5〉는 관객들이 작품의 두께를 말하는 흰 모서리와 받침대의 높이를 통하여 이 작품의 이중성을 깨닫게 된다. 즉 이 작품에서는 현실의 오브제가 점유하는 3차원 공간과 그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2차원 공간과의 모순 관계를 통하여 이미지에 모호성을 제시하고 있다(최현숙, 2003). 이러한 트롱프뢰유의 표현 특성은 재현이나 묘사의 전체과정에 대하여 의문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외부와 내부세계, 환상과 현실을 이중적으로 표현하여 트롱프뢰유의 초현실적이고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손영미, 조영아, 2002).

마지막으로 트롱프뢰유는 인체를 응용하는 표현기법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전혀 다른 이미지를 결합시키기도 한다. 이 표현 기법은 인체에 새로운 이미지를 결합시켜 인체를 표현하거나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것인 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관객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함께 환상을 유발해내기도 한다(손영미, 조영아, 2002; 장 루이, 1957/1990). 〈그림 6〉은 여성의 유방이 옷장에 걸려있는 투명한 나이트가운과 혼합되어 성숙한 관능미로 표현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 인체의 일부분과 의복의 유사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관객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동

시에 이미지화시킴으로써 시각적 충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7〉에서는 두 개의 신발 끝이 발가락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은 신발과 발이라는 유사한 두 현실을 결합시킴으로써 관객에게 혼동과 충격을 주는 작품이다(손영미, 조영아, 2002). 〈그림 8〉은 테페이즈마에 의한 트롱프뢰유 작품으로 여성의 얼굴에 몸의 형상을 표현한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들의 결합을 관객으로 하여금 얼굴의 눈, 코, 입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표현 특성은 트롱프뢰유에서 상호모순적인 명제와 반명제가 하나로 종합되어 새로운 오브제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유희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강옥민,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롱프뢰유는 사실적인 묘사나 그림 속의 그림, 인체의 응용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재창조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트롱프뢰유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다양한 표현 유형을 통하여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미적 특성을 표출되었다.

3. 트롱프뢰유와 패션디자인

초현실주의는 종래의 예술양식을 부정하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하며 인간 정신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Russel, 1999). 초현실주의적인 사고와 표현양식은 1930년대부터 패션분야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Mcdowell, 1984),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Automatism), 데페이즈망(Depaysmen), 프로타주(Frottage) 등의 표현방법의 시도와 전개는 현대 조형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패션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현대 미술용어사전, 1978). 또한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역설, 양면적 개념, 시각적 형태로의 이중 이미지의 데페이즈망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신비와 에로티시즘, 유희를 표현하였다(송영경, 2007).

패션 디자이너들이 초현실주의라는 예술 사조를 접하면서부터 패션에 트롱프뢰유 기법이 응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트롱프뢰유 기법을 패션에 응용한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는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1890~1973)이다. 스키아파렐리는 초현실주의 화가인 달리(1904~1989)를 비롯하여 장 콕토(Jean Cocteau, 1889~1963)에게서 영향을 받았으며 의상과 순수예술의 두 범주를 분리시켜 왔던 기존의 개념을 붕괴시켜 현대패션계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이영민 외, 2007).

스키아파렐리는 꽃, 나비, 구두, 입술 등 일상적인 사물들을 의복에 단추나 모자 액세서리 등으로 표현하여 장식성과 조형미를 부여하였고 니팅(knitting)기법이나 자수, 프린트 등을 이용하여 트롱프뢰유 기법을 표현하였다.

〈그림 9〉는 스키아파렐리가 1927년 발표한 트롱프뢰유 보우 스웨터로 검정색 바탕에 앞 넥라인에 흰색 리본무늬가 있는 실제 리본을 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의상이다(White, 1986). 이 의상은 트롱프뢰유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1927년 보그(Vogue)지에 새롭고 독특한 작품으로 선정되어 실리기도 하였다(곽미영, 1995). 또한 〈그림 10〉은 2개의 얼굴로 구성된 핑크 장미가 가득 꽃힌 꽃병을 의상의 등판에 디자인하여 수놓아 제작한 의상이다. 이 의상은 콕토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옆모습으로도 꽃병으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었다(Baily, 1988). 스키아파렐리는 의상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도 트롱프뢰유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1〉은 검정 장갑에 빨간 손톱을 부착하여 실제 손가락이 겹으로 들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연출하였다.

스키아파렐리 이후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트롱프뢰유가 접목된 의상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은 구두에 발가락 모양을 디자인하여 트롱프뢰유를 표현하였고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는 의상에 비딩(beading)을 하여 손으로 허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연출하였다(그림 12, 13)(채금석,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롱프뢰유는 회화 분야에서 사실적인 묘사, 그림 속의 그림, 인체의 응용 등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트롱프뢰유 표현 기법의 특징을 응용하여 패션분야에서는 의복의 디테일 효과, 자연물과 일상물의 이동, 인체를 응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실과 환상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을 재발견하여 기존 질서와 가치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Ⅲ.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유형과 미적 특성

1.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유형

착시 현상의 표현 방법인 트롱프뢰유는 일상 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법의 도입은 디자인에 다양한 표현 효과를 제시하면서 유머와 유희가 넘치는 표현으로 디자이너들에게 풍부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해준다. 회화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유형은 앞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실적인 표현, 그림속의 그림, 인체의 응용과 같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트롱프뢰유를 처음 패션에 도입한 스키아파렐리의 작품과 이후 패션에 나타난 트롱프뢰유의 표현 유형은 의복의 디테일 효과, 자연물과 일상물의 이동, 인체의 응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있어서 트롱프뢰유의 표현 유형을 손영미, 조영아(2002)는 조화, 인체의 응용, 앞과 뒤, 겉과 안, 미완성의 완성, 디테일로 분류하였으며 조진숙(2004)은 두 벌 착용 효과, 디테일 효과, 액세서리 효과, 인체 노출 효과로 분류하였다. 박은경(2010)은 사실적인 표



〈그림 9〉 엘자 스키타파렐리(1927).
보우 스웨터

(출처: <http://collections.vam.ac.uk/item/O15655/cravat-jumper-elsa-schiaparelli/>)



〈그림 10〉 엘자 스키타파렐리(1937).
드레스

(출처: <https://veebecouture.wordpress.com/tag/elsa-schiaparelli/>)



〈그림 11〉 엘자스키타파렐리(1938).
장갑

(출처: <https://www.pinterest.com/lopezposepaula/elsa-schiaparelli/>)



〈그림 12〉 피에르 가르탱(1986), Men's Shoes

(출처: <http://dosartistas.tumblr.com/post/84446762300/pierre-cardin-mens-shoes-with-toes-1986>)



〈그림 13〉 Marc Jacobs(1986), Trompe l'œil eaded dress

(출처: <https://www.pinterest.com/pin/45387908715237875/>)

현, 초현실적 표현, 가짜 가치 표현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선영(2010)은 트롱프뢰유의 유형을 신체 부위의 전치, 착장 방식의 해체, 디테일의 재현으로 분류하였다. 이신영(2012)은 트롱프뢰유의 유형을 복식 내적 결합방법(디테일)과 복식 외적 요소 결합방법으로 구분하여 복식 외적 요소 결합방법은 표현대중의 대중성-일상성, 형태와 크기의 유사성, 위치의 개연성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

롱프뢰유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미적 유형은 오브제의 종류와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의복의 내적결합과 디테일 재현, 액세서리 효과는 주로 사실적인 오브제의 표현 방법으로 인하여 의복의 사실적인 표현으로 도출

〈표 1〉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 표현 유형
이신영 (2012)	트롱프뢰유 패션디자인의 형태 생성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의복의 내적 결합(디테일), 의복의 외적 요소 결합, 표현 대상의 대중성 - 일상성 형태와 크기의 유사성, 위치의 개연성
김선영 (2010)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œil 표현에 관한 연구	신체부위의 전치, 착장방식에서의 해체 의복 구조 및 디테일의 재현
박은경 (2010)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페이크 디자인 연구	사실적인 표현, 초현실적 표현, 가짜 가치 표현
조진숙 (2004)	현대 패션에 표현된 Trompe l'œil 기법 연구	두벌 착용효과, 디테일 효과, 액세서리 효과, 인체노출 효과
손영미, 조영아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l'œil에 관한 연구	조화, 인체의 응용 앞과 뒤, 겉과 안, 미완성의 완성, 디테일

하였고 두 번째, 대상의 대중성, 형태와 크기의 유사성, 위치의 개연성, 가짜 가치 표현은 자연물이나 일상물 등 오브제의 위치나 형태의 크기 변화 등의 표현방법에 따라 일상물의 이동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의복의 외적요소 결합, 겉과 안, 앞과 뒤, 착장 방식의 해체는 이중적인 이미지로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체 노출, 인체의 응용, 신체부위의 전치는 인체라는 오브제를 중심으로 노출이나 신체 부위 이동 등을 통한 표현 방법으로 인하여 인체의 응용으로 도출하였다.

1) 의복의 사실적인 표현

트롱프뢰유의 성공은 관찰자를 속이는데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Hollmann & Tesch, 2004). 따라서 트롱프뢰유는 보는 이를 속일 수 있는 사실적 표현을 추구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2010년 이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는 액세서리 효과나 의복의 다양한 디테일을 가미하여 재미의 추구뿐만 아니라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사실적인 소재를 통하여 디자인 영역을 장식적 표현 영역을 확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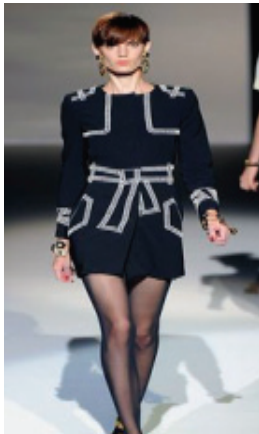
모스키노(Moschino) 2010 S/S Collection에서는 원피스에 트렌치코트의 라펠, 어깨 견장, 벨트, 포켓 등의 디테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트렌치코트를 착용하고 있는 착시를 연출하였다(그림 14). 츠모리 치사토(Tsumori Chisato)의 2011 S/S Collection에서는 스트라이프 원피스 네 크라인에 블랙 컬러로 스카프를 그려 넣음으로

써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연출하였다(그림 15). 톰 브라운(Thom Browne) 2015 S/S Collection의 의상(그림 16)은 빨강, 파랑, 흰색이 섞인 벨트의 프린팅으로 리본을 묶어있는 것과 같은 실제 벨트와 같은 착시를 연출하였다. 또한 의복의 사실적인 표현은 이질적인 소재에 따른 소재의 질감을 프린트하여 트롱프뢰유를 표현하거나 프릴, 러플 등의 주름의 음영을 프린트하여 주름 디테일의 의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까샤렐(Cacharel) 2010 F/W Collection의 의상(그림 17)은 평면적인 의상에 디지털 프린트로 프릴의 음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의상은 주름디테일로 인하여 입체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착시를 연출하였다. 조조단(Zoejordan) 2015 S/S 컬렉션의 의상(그림 18)은 원단에 대리석 무늬를 프린트하여 실물과는 다른 질감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제 착장할 수 없는 소재로 인해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착시효과를 주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의복의 사실적인 표현은 실제 디테일이 없는 의상에 의복의 디테일이나 액세서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뿐 아니라 유희성을 표출하였다.

2) 일상물의 이동

트롱프뢰유 기법은 사람이 눈속임을 알아차리기 전의 최초의 놀라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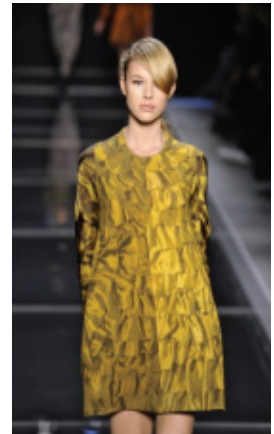
〈그림 14〉 Moschino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kr/collection/view.asp?scd_code=1999#131382_1_7)



〈그림 15〉 Tsumori
Chisato 2011 S/S Collection
(출처: <http://www.tsumorichisato.com/en/collections/ss-2011/photo/ss-2011-look-20/>)



〈그림 16〉 Thom Browne
2015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thom-browne#collection>)



〈그림 17〉 Cacharel 2010
F/W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it/en/shows/show/fw-10-11-ready-to-wear/cachar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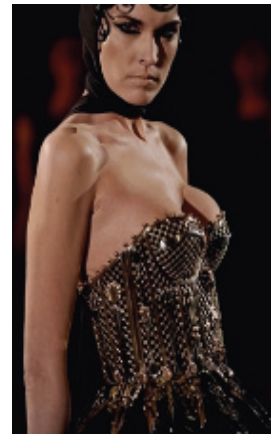
〈그림 18〉 Zoe Jordan
2015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zoe-jordan#collection>)



〈그림 19〉 Mary Katrantzou
2012 F/W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ready-to-wear/mary-katrantzou#collection>)



〈그림 20〉 Mary Katrantzou
2014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mary-katrantzou>)



〈그림 21〉 Franck Sorbier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elle.com/runway/spring-2010-couture/g24989/franck-sorbier-394447/?slide=10>)

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에서도 재치 있는 상상력을 가미해 즐거운 눈속임을 연출한다(Milman, 1982; 신혜정, 2010). 대부분의 트롱프뢰유에서는 관객의 눈을 잘 속이기 위해서 관객이 잘 알고 순간적인 인식으로 진짜 사물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대상물을 표현하여 관객의 눈

을 속이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 유형은 현대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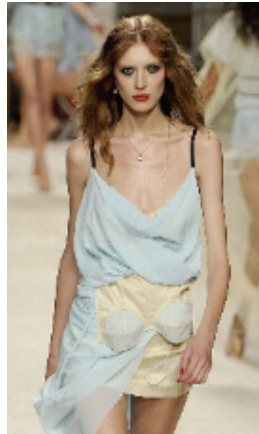
현대 패션에서 트롱프뢰유 표현 유형 중 일상물의 이동은 일상용품이나 폐품 등의 오브제를 모아 콜라주기법을 통하여 사물이 가진 일상성에서 이탈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의외의 재미와 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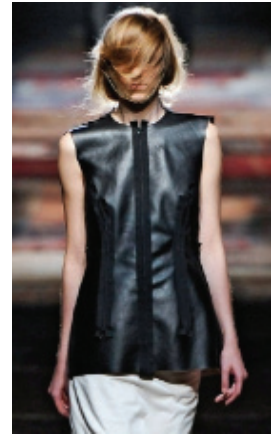
〈그림 22〉 Aggugini 2012 S/S Collection
(출처: <http://www.fashionising.com/runway/b-kinder-aggugini-ss12-15660.html#1>)



〈그림 23〉 Alexander McQueen 2011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alexander-mcqueen/slideshow/collection#34>)



〈그림 24〉 Frankie Morello 2011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it/en/shows/show/ss-2011-ready-to-wear/frankie-morello>)



〈그림 25〉 Maison Martin Margiela, 2012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12>)

화로 인한 초현실성을 주어 유희성을 표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 카르란주(Mary Katrantzou)는 순가락, 옷걸이, 타자기, 시계, 욕조, 전화 다이얼 등과 같은 사물을 프린트 문양에 담아 이브닝 웨어로 제작하여 선보이거나 남성화 브로그(brogue), 운동화, 이브닝 슬리퍼를 선택하여 각각의 디테일을 확대, 해체시켜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그림 19, 20). 또한 〈그림 21, 22〉는 일상용품인 포크나 책은 코르셋과 모자 등 패션 아이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상물의 이동은 의복의 소재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3〉은 원단이 아닌 깃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디자인한 의상으로 콜라주 기법을 통하여 사물이 가지는 일상성에서 이탈하여 일상용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일상물의 이동은 일상용품으로 사용되는 타자기, 시계, 포크 등을 본래의 사용 목적을 탈피하여 패션 디자인에 디테일이나 프린트에 응용하여 사물이 가지는 한계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 한계를 새로운 상상과 가능성의 세계로 이어주는 특별한 장치로 사용함으로써 해체성과 유희성을 표출하였다.

3) 이중적인 이미지

이중적인 이미지는 오브제를 활용하여 한 화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적 형태가 보이는 표현 유형이다. 초현실주의 화가 중 달리는 그의 회화에서 이중적인 이미지나 다중상이 일으키는 환각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착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였다. 2010년 이후 현대 패션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이미지 표현 유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의상 형태를 결합하여 표현하거나 의상의 위치 전환 착시, 중첩의 착시 등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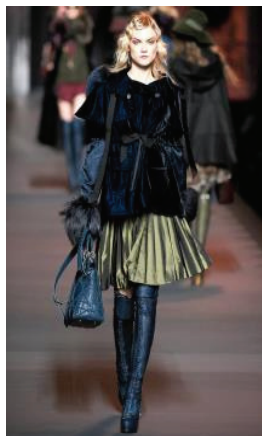
첫 번째, 의복의 위치 전환 착시는 관습적으로 고정된 의복의 위치를 의복 내에서 바꾸는 방법으로 위치를 전환하여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표현방법이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의복 간의 위치이동을 통하여 하나의 이미지가 이중적 기능을 하도록 시각적 착시를 일으켜 환영을 연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는 의복 안에 입은 속옷을 스커트 위로 위치를 전환하여 기존의 속옷 용도에서 탈피하여 스커트의 장식으로 활용한 예이다. 또한 〈그림 25〉에서는 재킷의 지퍼를 겹과 안을 전치하여 디자인하여 의복의 겹과 안을 뒤집은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그림 26〉 Marios Schwab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ready-to-wear/marios-schwab/slideshow/collection#9>)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2010 S/S
Collection 1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ready-to-wear/jean-paul-gaultier/slideshow/collection#15>)



〈그림 28〉 Dior 2010 F/W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ready-to-wear/christian-dior/slideshow/collection#6>)



〈그림 29〉 Victor & Rolf
2011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viktor-rolf/slideshow/collection>)

위치 전환의 착시는 현대 패션에서 의복의 기본 용도와 위치를 바꿔 착장의 본질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이성적 사고에서의 일탈을 통하여 유희성을 자극한다.

두 번째, 중첩의 착시는 한 벌의 의상이지만 여러 벌의 의상을 겹쳐 입은 것으로 착시를 연출하거나 소재를 덧대거나 독특한 재단법으로 레이어링(layering)한 것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리오 스왑(Marios Schwab)의 2010 S/S Collection 〈그림 26〉은 재킷과 스커트를 착용한 듯한 착시 효과를 연출하지만 독특한 재단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상이다. 중첩의 착시는 의복 구성선을 활용하여 연출하기도 한다. 〈그림 27〉은 트렌치코트 안에 원단을 덧붙여 의상을 한 벌 더 레이어링한 효과를 연출하였다. 또한 디오르(Dior) 2010 F/W Collection에서는 재킷 위에 또 다른 재킷을 레이어링하여 겹쳐 입은 착시를 연출하였다(그림 28). 중첩의 착시는 의복의 외적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소에서도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림 29〉는 소매를 레이어링하여 여러 벌의 의상을 착용한 것 같은 착시효과를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2010년 이후 이중적인 이미지는 기존의 전통방식에서 탈피하여 아이템의 독특한

재단법, 의복의 위치 전환 등을 통하여 의도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착시의 효과로 인하여 미의 원리 파괴, 부조화의 조화 등 전위성과 해체성으로 표출되었다.

4) 인체의 응용

초현실주의 예술에서는 신체가 중요한 매개체이며 신체의 위치를 바꾸거나 변형, 다른 오브제와의 결합을 통하여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표현하며 이 때 표현되는 전치는 부위간의 전치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신체의 부위를 중첩하여 표현하는 것도 포함한다(김승아, 2010). 따라서 현대패션에서 초현실주의 예술의 표현 기법 중 하나인 트롱프뢰유는 인체의 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신체 부위의 전치 등의 방법으로 인체의 응용을 표현하고 있다.

인체의 부분 노출은 주로 가슴, 손, 입술, 눈, 몸통 등을 부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의복 속에 감춰진 신체를 의복 위에 표현함으로써 노출과 은폐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0〉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2010 F/W Collection 의상으로 의복의 가운데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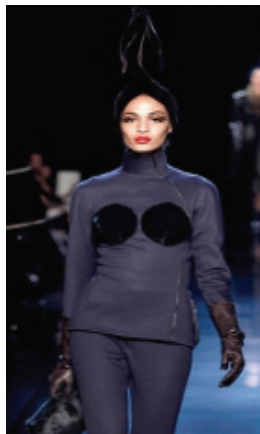
〈그림 30〉 Vivienne Westwood Red label 2010 F/W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0-ready-to-wear/vivienne-westwood-red-label/slideshow/collection#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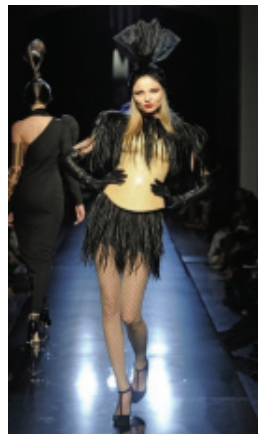
〈그림 31〉 Jean Paul Gaultier 2010 S/S Collection 2
(출처: <http://www.vogue.co.uk/fashion/spring-summer-2010/ready-to-wear/jean-paul-gaultier>)



〈그림 32〉 Hussein Chalayan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ready-to-wear/chalayan/slideshow/collection#39>)



〈그림 33〉 Jean Paul Gaultier 2010 F/W Couture 1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0-couture/jean-paul-gaultier/slideshow/collection#5>)



〈그림 34〉 Jean Paul Gaultier 2010 F/W Couture 2
(출처: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0-couture/jean-paul-gaultier/slideshow/collection#43>)

분에 가슴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 유형은 성적인 유혹과 함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권력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간 내면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순수한 감각

을 느끼게 한다(김명주, 1993).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2010 S/S Collection 의상(그림 31)은 의복 안의 인체가 비치는 것같이 묘사하고 의복의 표면에 인체근육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인체가 노출된 듯 착각하게 하여 유희

성과 전위성을 나타냈다.

신체 부위의 전치는 전통을 거부하고 억압된 무의식의 욕구를 분출하여 성적 과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는 이미 인체에 존재하고 있는 부위를 한 번 더 중첩해서 표현하거나 신체 부위를 대신하는 복식구조를 전치하는 방법, 인체와 의복을 내, 외부적으로 전치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권연옥, 2009). <그림 32>는 후세인 살라안(Hussein Chalayan)의 2010 S/S Collection으로 신체 일부분인 손을 만들어 변형의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실제 손이 옷을 잡고 있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의상이다. <그림 33, 34>는 복식 안에 숨어 있어야 할 신체의 일부를 복식 밖으로 전치하여 보여줌으로써 전치를 통해 의복 속에 갇혀 있는 신체가 겉으로 해방되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트롱프뢰유 표현 유형 중 인체의 응용은 인체의 부분 노출, 신체부위 전치, 신체 내, 외부 전치를 통하여 신체의 각 부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낯선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신체와 의복을 동시에 옷이라는 하나의 화면으로 제시하였다. 트롱프뢰유는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성적인 유희를 표출하거나 인간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무의적인 욕망을 표출하였다.

2.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미적 특성

현대 패션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은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서 끊임없이 현대인들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왔으며 특히 문화 예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현대 패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요소와 원리에 있어서도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다양하고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아래 트롱프뢰유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유형으로 나타났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표현 유형은 의복의 사실적인 표현, 일상물의 이동, 이중적인 이미지, 인체의 응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표현 유형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미적 특성은 해체성, 전위성, 유희성으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트롱프뢰유는 초현실주의에서 파생된 하나의 표현기법으로 현대 패션에서는 해체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해체성은 현대 패션을 조형 예술적 표현으로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패션과 예술의 조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복식 구성 기술의 발달과 하이테크 놀로지의 발전은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 다양한 의복의 형태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트롱프뢰유의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소재의 해체성, 아이템의 독특한 재단법과 남성복, 여성복, 시대의 복식, 동양과 서양의 복식의 혼재, 의복의 위치 전환 등 다양한 트롱프뢰유의 표현 영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일상용품이나 폐품 등의 오브제를 모아 콜라주기법을 통하여 표현한 컬렉션 작품들에서는 본래의 사용법의 제한을 벗어나 일상성을 이탈함으로써 부조화로 인한 해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전위성은 기존 모더니즘 문화현상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탈 모더니즘 현상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으로서 모든 관습적 양식에서 일탈하려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위성은 풍요로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존의 미학적 태도와 달리 기존의 사회 문화질서를 거부하고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상적인 미래를 추구한다(Calinescu, 1993). 이러한 전위성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기존의 전통, 규범, 문화를 연결하는 코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실험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일상적인 것들을 낯설게 하여 충격 효과를 연출한다(구인숙, 2002).

현대 패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전형적 미학 규범에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아름다움보다 독특함, 전형적 미학 규범에 대한 저항 등에 큰 비중을 두었다(이봉덕, 2001). 전위성은 의복의 안과 밖을 전환, 중첩시키거나 가슴이나 몸통 등 인체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 신체 부위를 전치시키는 착시효과 등의 트롱프뢰유 표현유형을 통하여 착장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체되고 신체 위에서 재창조되어 절대적인 개념대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열린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열린 형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

난 개방적인 시도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위성은 책이나 포크 등의 일상물을 복식으로 이동시키거나 짚이나 빨대 등을 복식의 형태에 적용시켜 관객들에게 일상물을 낯설게 하여 충격을 주어 표출하였다. 이와 같이 전위성은 트롱프뢰유 표현유형 중 인체의 응용, 일상물의 이동 등 고정관념이 벗어난 방법을 통하여 전형적 미학 규범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디자인 원리에 따른 복식의 재해석을 표현하였다.

세 번째, 유희성은 주관적 체함에 있어서 마음의 해방과 정신의 자유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기대된 것과 실현된 것 사이의 양적 또는 질적인 모순에 근거하는 대조감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다계우찌, 1990). 이러한 유희성의 특성은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중 하나로 무겁고 심각한 것을 회피하고 대신 가볍고 오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현대 패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전통적인 미적 규범이나 기능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균형과 조화의 세련된 아름다움 보다는 유머와 개성을 통한 파격적인 미적 표현으로 의복으로 하여금 놀람과 웃음을 느끼도록 하며 심각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유희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유희성은 트롱프뢰유의 표현 유형을 이용하여 칼라나 벨트, 스카프 등 액세서리나 의복의 디테일을 프린트하거나 그려 넣어 실제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이용한 소재의 착시를 통하여 표현된다. 또한 유희성은 일상물의 이동과 신체 부위의 전치, 신체부위 일부 노출, 이중적인 이미지의 트롱프뢰유 표현 유형에 의해 표현되며 이러한 기존 전통 방식에서의 해방을 통하여 즐거움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유희성은 의복의 사실적인 표현과 일상물의 이동을 통한 이질적인 오브제의 전치와 착시를 통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환상세계를 다차원적으로 표현하여 관객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객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닌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표현 유형 사례를 분류하고 미적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디자인 영역에서 창작 영역을 확대시키고 패션과 미술기법의 접목을 통한 창조적인 패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의 미적 특성 도출을 위해 트롱프뢰유 작품의 시각적 구성요소와 표현유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트롱프뢰유 유형을 의복의 사실적 표현, 일상물의 이동, 이중적인 이미지, 인체의 응용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트롱프뢰유 표현 유형들을 2010년 이후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적용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의 사실적인 표현은 액세서리나 의복의 디테일을 사실적으로 프린트하거나 그려 넣는 등의 착시효과를 통하여 표현되었다. 또한 일상물의 이동은 포크나 책 등 일상용품을 사용법의 제한에서 벗어나 복식의 형태나 아이템으로 이동시켜서 표현되거나 소재에 있어서 짚이나 빨대 등 일상용품을 의복 소재로 이용하여 표현되었다. 이중적인 이미지는 의복간의 위치를 이동시켜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거나 한 벌의 의상이지만 여러 벌의 의상을 겹쳐 입은 것으로 착시를 연출하여 표현되었다. 인체의 응용은 인체의 부위 중 주로 가슴, 손, 입술, 눈, 몸통 등을 부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노출과 은폐의 역설적 관계를 표현되거나 신체 부위를 전치시켜 전통을 거부하고 억압된 무의식의 욕구를 표현되었다.

셋째, 이러한 트롱프뢰유 표현유형을 바탕으로 트롱프뢰유의 미적 특성은 해체성, 전위성, 유희성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해체성은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통한 소재의 자유성, 의복의 위치 전환, 일상용품이나 폐품 등의 오브제를 모아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일상물의 이동 등의 트롱프뢰유 표현유형에서 표출되었다. 또한 해체성은 이러한 표현유형을 통하여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패션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위성은 기존의 미학 규범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트롱프뢰유 표현유형 중 의복의 안과 밖을 전환,

중첩시키거나 가슴이나 몸통 등 인체의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 신체 부위 전치, 일상물의 이동 등을 통하여 표출되었다. 셋째, 유희성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중 하나로 유희와 개성을 통하여 마음의 해방과 정신의 자유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액세서리나 의복의 디테일을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책, 포크 등 일상물의 이동을 통하여 표출되었다.

이와 같이 트롱프뢰유는 단순한 착시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조형예술로서 현대 패션에서도 즐거운 눈속임과 유희 있는 디자인으로 폭넓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감각으로 패션 디자인의 모티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선행연구와 컬렉션을 통해 분석한 트롱프뢰유 유형은 사진을 분석하고 분류하는데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로 보다 다양한 컬렉션 자료를 이용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고 보다 다양한 자료와 객관적인 분석으로 연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옥민. (2007).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데페이즈망 기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인숙. (2002). 1995년 이후 아방가르드 패션의 디자인 연구. *패션비즈니스* 6(4), 62-82.
- 곽미영. (1995).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연옥. (2009).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패션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주. (1993).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10). 현대 패션에 나타난 Trompe l'œil 표현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34(4), 597-605.
- 김승아. (2010). 21세기 패션스타일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다께우찌 도우지. (1990). *미학 예술학 사전*(안영길 역). 서울: 홍문당.
- 박은경. (2010).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페이크 디자인 연구. *복식*, 60(3), 110-122.
- 방성련. (2007). 198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미, 조영아.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 l'œil에 관한 연구. *복식*, 52(4), 155-171.
- 송영경. (2008). *키덜트 패션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주영. (2008). 패션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화가와 패션, 패션디자이너와 예술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식*, 58(8), 1-12.
- 신혜정. (2010). 레이어링에 의한 Trompe l'œil 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 여성복 신규브랜드 상품개발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3(6), 81-86.
- 안성준, 정재윤. (2011). 광고에 나타난 트롱프뢰유 기법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283-295.
- 영화당 편집부. (1978). *현대 미술용어사전*. 서울: 열화당.
- 유인화. (2011.04.20). 전시장서 사진도 찍고, 작품에 손대시오?. 자료검색일 2016.01.05. 자료출처: <http://news.kahn.co.kr>
- 유한태. (1987). *착시의 조형심리*. 서울: 월간시각디자인.
- 이정은. (1995). *Visual Illusion을 응용한 현대 복식 디자인 연구: Trompe L'œil 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 (2013). 트롱프뢰유 패션디자인 형태 생성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 *복식*, 63(3), 17-32.
- 이연식. (2010). 눈속임 그림: 트롱프뢰유, 실재를 흉내내고 관객을 속이다. 서울: 아트북스.
- 이윤진. (2001). *현대 의상에 나타난 유희성 - 미술의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현. (2009). *지식의 미술관*. 서울: 아트북스.
- 조진숙. (2004). 현대 패션에 표현된 Trompe l'œil 기법 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5), 880-896.

- 진중권. (2011 a).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고전예술*. 서울: 휴머니스트.
- 채금석. (2002).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 한국불어불문학회.(1985). *불한사전* 서울: 삼화출판사.
- Baily, A. (1988). *The Passion for Fashion*, London : Dragon's World Ltd.
- Calinescu, Matei. (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이영욱의 3인역)* 서울: 시각과 언어. (원저: 1987 출판)
- Hamilton, J. A. (1987).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7.
- Hollmann, E., & Tesch, J. (2004). *A Trick of the Eye, Trompe l'œil Masterpieces(1st ed.)*. Munich, Berlin, London, New York : Prestel.
- Mcdowell, Colin. (1984).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Frederick Muller.
- Milman, Miriam. (1982). *Trompe l'œil Painting*. New York: Rizzoli.
- Russel, J. (1989). *The Meaning of Modern ART*. London: Thames & Hudson.
- White,Palmer. (1986). *Elsa Schiaparelli*.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